

## 카카오뱅크, 1분기 순이익 1873억...전년比 36.3%↑'분기 최대'

등록 2026.05.06 08:10:00 | 수정 2026.05.06 08:46:24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1873억원을 시현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36.3% 증가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분기 최대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1374억원이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1분기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8193억원을 기록했다. 여신이자수익은 5165억원으로 2.7% 늘었다.

여신이자수익을 제외한 비이자수익은 302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7.5% 증가하며, 분기 기준 비이자수익이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했다. 전체 영업수익에서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높아졌다.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 성장한 808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에 카카오뱅크를 통해 제휴 금융사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금액은 1조3280억원이다. 향후 오토금융,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대출 비교 상품군과 제휴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머니마켓펀드(MMF)박스와 펀드 합산 판매 잔고는 지난해 9월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6개월 만에 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체크카드 결제액은 4분기 연속 6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자금융용손익은 152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증권 손익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28억 원 감소했다. 첫 글로벌 투자를 단행한 인도네시아 디지털뱅크 '슈퍼뱅크'가 상장하면서, 투자에 대한 평가차액 933억원이 영

업외손익으로 반영됐다.

카카오뱅크는 2025 회계연도 주주환원율을 45% 수준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26 회계연도 이익에 대한 주주환원율을 50% 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1분기 말 기준 고객 수는 2727만명으로 나타났다. 3개월 만에 57만명 증가한 규모다.

우리나라 전체 40대 인구의 5명 중 4명(80%), 50대 인구의 5명 중 3명(62%)은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미만 미성년 인구 침투율은 31%까지 높아졌다.

고객 활동성도 꾸준히 증가해 역대 최대 트래픽을 기록했다. 1분기 월간활성이용자수(MAU)와 주간활성이용자수(WAU)는 각각 2032만명, 1502만명으로 집계됐다.

1분기 신규 가입 고객 중 24%는 '우리아이통장' 가입 고객으로 분석됐다. 3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월간활성이용자 수는 4개월 전과 비교해 10배 증가했다.

1분기 말 수신 잔액은 69조3560억원으로 3개월 만에 1조원 넘게 늘어났다. 국내 증시 활황 영향으로 정기적금 잔액은 감소했으나,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 잔액이 성장하며 전체 수신 규모가 확대됐다.

모임통장 잔액이 1조 원가량 증가하며 요구불예금 중심의 수신 성장을 견인했다. 1분기 기준 모임통장 순 이용자수와 잔액은 1290만명, 11조6000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말 여신 잔액은 47조6990억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7.7% 늘었다.

카카오뱅크는 1분기 45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했다. 1분기 중·저신용 대출 신규 취급 비중은 45.6%, 잔액 비중은 32.3%로 목표치를 상회했다.

1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3480억원 증가한 3조4030억원이다.

1분기 연체율은 0.51%로 지난해 동기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0.53%)과 대손비용률(0.55%)은 이전 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2.00%로 지난해 동기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